

당선된 현상설계경기작품의 부활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Revivification of the Competition-Winning Project

천안 복자 여자 중고등학교의 재건축 설계를 위한 현상설계경기에 참여해 달라는 의뢰공문을 받은 2004년 11월초는 무척이나 지쳐있는 상태였다. 2003년에 당선된 작품들의 실시설계도면을 마무리하면서 온갖 진이 다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4년 초에 당선된 성당 한 곳의 대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실시설계작업이 무한정 연기되어 버렸고, 그 이후의 현상설계에 응모한 모 대학교의 도서관과 다른 두 곳에 제출한 작품들이 납득 못할(?) 낙선의 결과로 나왔기에 안그래도 지친 몸과 마음은 더 힘든 상태에 있었다.

기존 업무의 힘든 마무리와 확정된 작업의 무기한 연기, 연속된 낙선의 절망감은 더 심해지는 건축불황의 늪에서 2005년의 작업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사 이전의 직업인으로서 힘들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는 하였지만 설계자의 본능과 직업인으로서의 억척스러움은 오히려 다시 현상설계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면에는 천안의 복자여자 중고등학교가 한국순교복자 수녀원에서 운영하며 관리하는 학교인지라 현상설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는 없으리라는 확신도 한 몫을 하였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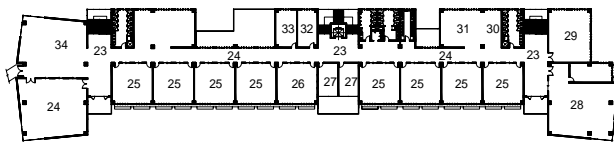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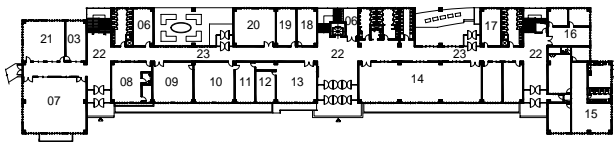
고등학교 조감도

- | | | |
|-------------|------------|-----------|
| 01_ 소강당 | 13_ 행정실 | 24_ 컴퓨터실 |
| 02_ 무대 | 14_ 교무실 | 25_ 보통교실 |
| 03_ 준비실 | 15_ 생활관 | 26_ 학년교무실 |
| 04_ 로비 | 16_ 발간실 | 27_ 교과연구실 |
| 05_ 기계실/전기실 | 17_ 학부모상담실 | 28_ 과학실 |
| 06_ 창고 | 18_ 숙직실 | 29_ 대강의실 |
| 07_ 가사실 | 19_ 인쇄실 | 30_ 리카툼 |
| 08_ 보건실 | 20_ 자료실 | 31_ 학생휴게실 |
| 09_ 회의실 | 21_ 재물실 | 32_ 상담실 |
| 10_ 교장실 | 22_ 홀 | 33_ 교사휴게실 |
| 11_ 점대실 | 23_ 복도 | 34_ 정보검색실 |
| 12_ 문서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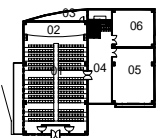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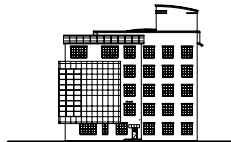
01 3 6 1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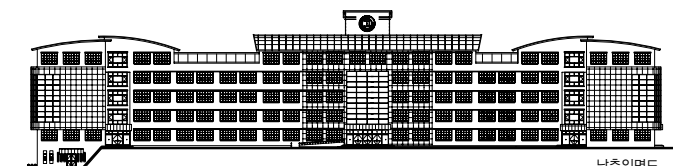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01 3 6 10m



남측입면도

11월 8일에 있었던 현장설명에서는 기존의 도시 관동을 제외한 전체 교사의 재건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개교 50주년을 준비하며 계획한 학교의 재건축 연면적은 약 22,000㎡로써 고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을 수용하는 교사와 급식시설, 지하 주차시설이 요구되었고 공사 도중에도 수업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계획안을 필요로 하였다. 계획안을 위한 작업기간은 한달이었고 12월중에 당선자를 발표하며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와 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현장설명을 마치고 직원들과 학교 주변을 촬영하며 반세기 가까운 나이를 가진 운동장 주변의 나무들을 바라보니 충남지역의 명문학교로서 인정받은 학교의 전통을 보는듯하여 펜스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여러차례의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校舍)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교는 남향이지만 중학교는 서향이어서 햇빛과 더위로 인한 수업에 지장이 많다. 둘째, 중학교 교사(校舍)의 구성내용과 학교까지의 통로 등을 볼 때 너무 고등학교의 부속학교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어서 중학교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했다. 셋째, 급식시설이 중학교와 붙어 있어서 음식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넷째, 보행자와 자동차가 폭 3m정도의 좁은 도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등하교시간이 너무 위험하고 복잡하다. 다섯째,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장이 운동장의 넓은 부분을 침범하였다. 여섯째, 기틀릭 재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혀 없다. 일곱째, 여학교로서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외부공간 구성이 전혀 없다. 여덟째,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교실, 휴베이스, 휴게공간 등의 추가시설들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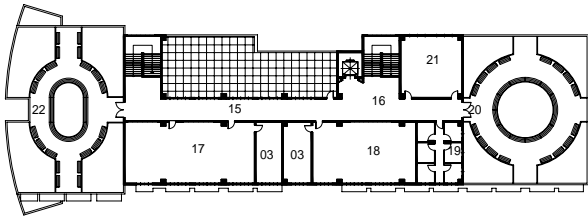
이러한 현재학교를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건물들은 급식시설이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기존 도서관 및 체육관동으로 나뉘었으며 각 건물간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살리는 계획안을 실현하였다.

외부공간은 각 공간마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도서관 앞에는 야외독서와 백일장 등을 위한 '사색의 터'를, 교문 입구에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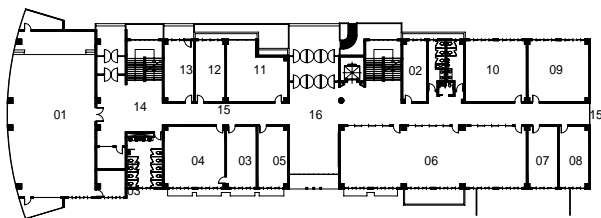


중학교 조감도

- | | |
|--------------|----------------|
| 01. 소강당 | 12. 학생회의실 |
| 02. 창고 | 13. 체육교구실 |
| 03. 준비실 | 14. 복비 |
| 04. 반성실 | 15. 복도 |
| 05. 상담실 | 16. 홀 |
| 06. 교무실 | 17. 미술실 |
| 07. 교사휴게실(남) | 18. 음악실 |
| 08. 교사휴게실(여) | 19. 개인연습실 |
| 09. 정보실 | 20. 옥상휴게공간 |
| 10. 방송실 | 21. 예능이론교실 |
| 11. 자료실 | 22. 미술 야외 학습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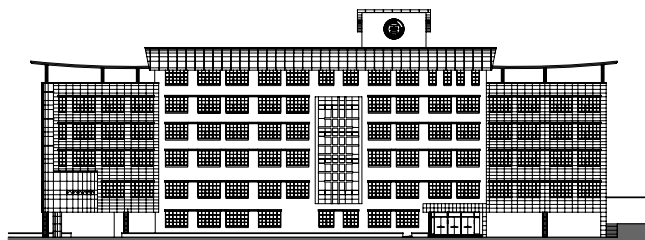


5층 평면도



0 1 3 6 10m

1층 평면도



남측면도

학부모 등의 약속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터'를, 운동장은 전교생의 행사용인 대운동장과 중학생의 소운동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 이용에 적합한 복지관 앞에는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터'를, 1층의 소성당 마당은 마리아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14처를 설치하여 '신앙의 터'를 구성하였고, 중학교와 대운동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스텐드형 야외 학습장'을 구성하였다.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차량으로 인한 보행불편이나 차량의 운동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였다.

학교건물의 내부 구성도 현재의 학교 운영형태가 6차교육과정에 가까웠기에 6차교육과정과 7차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동선을 해결하였다.

건물의 외관은 기존건물인 도서관동이 보존되는 조건이었으므로 도서관동의 지붕형태와 외장재료를 사용된 벽돌+화강석의 패턴을 응용하여서 기존건물과의 조화를 살렸다.

드디어 12월 8일 작품을 제출하면서 청파동의 한국순교복자 수녀원에서 담당 수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다. 관리국장 수녀님의 "이런 학교라면 정말 여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호평을 듣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2005년 1월 24일 예서야 당선 소식을 학교 행정실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통보 받을 수 있었다.

1월 27일에는 당선작에 대한 학교측의 평가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교장선생님, 행정실과의 1차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를 6월초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급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구조계산은 미리 의뢰를 하고 토목, 전기, 소방, 설비 등의 협력업체와의 일정계획을 협의했고, 1월 31일에는 학교와의 1차 협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체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한 내용을 토로하며 하루종일 가진 회의였지만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합의는 거의 원안대로 무난히 이루어졌고, 2월 4일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마라톤 회의가 있었으나 새로운 학교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행복한 회의였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함께 가진 면담에서 학교측의 우려를 전달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으나...

2005년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자금지원도 모두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소식과 시행상의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충남교육청에서는 2005년에는 공립학교만을 지원하며 사립학교는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행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곳에서 지원금 대신에 건물로 인수인계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설계와 시공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현상설계 당선작품도 투자자와 협의를 해야고 그 협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계획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며 실시설계 작업을 내년까지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모든 교육시설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사업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해결방법이 쉽지 않음이 걱정스럽다.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사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학교측에서 작성하는 지원요청 계획서에 설계부분은 제외하면 된다고 하지만 선정될 민간투자자와의 협의와 학교측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생각하면 기나긴 여정의 한 모습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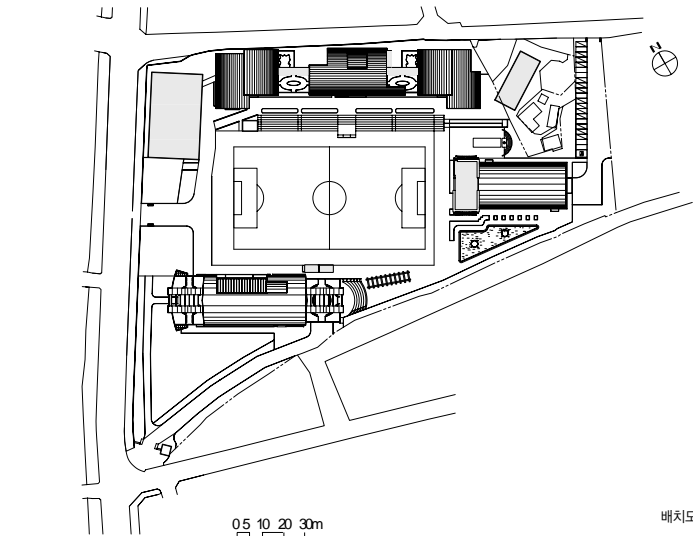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기본설계와 협의과정까지 끝낸 완성된 설계계획안을 두고 새롭게 설계를 시작하겠다는 억지사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2006년이 되어서야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 만큼은 변함없는 현실인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나의 작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답답하고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안타까움이 드는 이유는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 이 땅에 서게 되는지의 여부보다도 하루속히 작업을 시작해야만 극도의 건축불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테더라는 현실생활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든다는 것이다.

현상설계 당선작의 실시설계 지연이라는 변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건축사로서의 작은 자존심마저 갇아 먹는 것 같아서 그 기다림의 지루함과 고통은 앞으로도 더 크게만 느껴질 것 같다. ■



건축개요	
대지위치	천안시 성황동 9-1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25,647㎡
건축면적	5,749.57㎡
연 면 적	25,389.74㎡
건 폐 율	22.42%
용 적 률	85.40%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01. 강당
- 02. 휴게실
- 03. 홀
- 04. 매점
- 05. 교직원식당
- 06. 창고
- 07. 영양사실
- 08. 전치리실
- 09. 부식창고
- 10. 주방
- 11. 제의실

